

프랑스 오리산업 연수 · 견학 프로그램 참가 소감 1



참가자 소속 : 주원산오리
성명 : 박일순 대리

좋았던점

오리산업 선진국가 교육인만큼 그리드사에 종오리 산란사에 방문한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종오리 축사 설비와 바닥 깔짚상태와 깔짚 살포기 그리고 산란하는 곳과 생활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축사환경에서는 생소하지만 향후 우리나라에 맞게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기억입니다.

아쉬웠던점

알고싶었던 종오리육성과정을 보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세계 3대 축산박람회인 렌즈축산박람회 관람은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황리에 개최된 만큼 수많은 인파로 인해 박람회가 혼잡하여 차분한 관람이 어려웠던 점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개선의견

오리의 육종 및 개량, 부화, 사육, 가공 · 유통에 이르기

까지 종오리 및 육용오리의 전체적인 과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느끼는 만큼 배울점도 더 많아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리산업 및 문화, 기술에 대해 좀 더 다양하게 연수 프로그램이 짜여진다면 더 없이 좋은 교육이 되리라 믿습니다.

종합소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유럽의 선진 오리산업을 체감하고, 유럽의 선진 오리산업을 직접 보고 배움으로써 향후 국내 오리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은 도입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갖습니다. 앞으로도 오리산업 선진국 해외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프랑스 오리산업 연수 · 견학 프로그램 참가 소감 2



참가자 소속 : 오 리 스
성명 : 신강해 부장

좋았던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오리 사육기술에 관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좋았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축산박람회 관람회와 우리나라 PS를 수출하고 있는 그리므드사의 선진기술 견문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그곳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돌아왔다는 점에 뿌듯합니다.

아쉬웠던점

축산선진국에 간 만큼 여러 업체들의 사육환경을 보고 싶었으나, 각 업체들이 너무 멀리 있어서 보지 못한 것과 정해진 시간안에 일정을 마쳐야해서 여유가 없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관람을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개선의견

하루정도의 자유시간을 두어 외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리산업의 좀 더 많은 분야를 다양히 볼 수 있는 연수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종합소감

이렇게 선진국을 갈 수 있게 해준 오리협회와 우리 사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싶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어서 좋았던 연수인 것 같아 무척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떤 참가자들이 가든지 오리산업발전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번에 참가한 모든 분들과 항상 연락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합니다.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 많이 그리울것 같습니다.

